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 2, 通州~玉河館

이승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woohabin@hanmail.net

차례

1. 머리말
2. 八里橋에서 通惠河의 水運을 살피다
3. 마음속 깊이 새겨진 장소, 黃金臺와 金臺夕照
4. 조복을 착용하고 이국문화를 체험하다, 東嶽廟
5. 북경 입성과 귀국 제일보를 던다, 朝陽門
6. 牌樓 길 지나 玉河橋를 건너다
7. 맺음말

1. 머리말

압록강을 건넌 여행사들이 북경에 도착하기까지는 대략 30일 정도가 걸렸다. 종종 燕郊堡에서 묵기도 했지만, 북경 도착 마지막에 묵었던 곳은 주로 通州였다. 이 경우 새벽에 통주성 서문을 나서, 大王莊이나 八里堡에서 아침을 먹었다. 東嶽廟에서 관복으로 갈아입은 뒤 말을 타고 조양문을 통해 북경성으로 들어갔다. 북경성 안의 조선 사신 숙소는 일정치가 않았는데, 오랜 시기 가장 빈번하게 묵었던 곳은 玉河館이었다. 통주성 서문에서 조양문까지의 거리는 39 리였으며, 오늘날 척도로는 20km 정도이다. 연행록에는 조양문 안 이동 거리는 표기하지 않았는데, 조양문에서 옥하관 터까지의 거리는 5km이다. 통주성에서 옥하관까지의 총 거리는 25km 정도가 되는 셈이다. 시간 당 4km를 가고, 중간에 식사에 필요한 1시간과 동악묘에서 옷을 갈아입고 둘러보는 1시간을 더하면, 새벽 5시에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후 3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었다. 옥하관에 도착한 직후 表文과 咨文을 예부에 전달하면서서부터 사신의 외교 일정이 시작되었다. 본고는 연행로의 마지막 구간인 통주~옥하관의 노정을 재구하고, 연행의 관점에서 그 일대의 역사 사연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八里橋에서 通惠河의 水運을 살피다

통주성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潞河를 건너야 했다. 노하는 원대 이후 중국 물류의 중추 구실을 했던 京杭大運河의 북단을 가리킨다. 겨울에는 얼음 위를 도보로 건넜고, 다른 계절에는 배를 띄우고 그 위에 널판을 얹은 浮橋를 주로 이용했다.¹⁾ 노하의 서쪽 對岸, 통주성 동문 밖에는 통주의 세 나루 중 하나인 土垠碼頭가 있었다. 연행사들이 지나던 물길 위에는 현재 東關

大橋(2006년 준공)가 놓여있다. 다리 이름은 통주성 동문 밖의 거리가 東關大街²⁾였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다리는 지금도 북경으로 진입하는 동쪽의 주요 통로 구실을 한다.

통주성 동문 밖에는 永樂 연간(1402~1424)에 세워진 潞河驛이 있어 드물게 사신들의 숙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노하역은 운하가에 있어 경관이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1460년 서거정은 귀로에 노하역에 묵으며 주위 풍광을 찬미했다.³⁾ 이곳은 운하 수로를 이용하여 북경을 오갔던 베트남 사신들이 이용하던 장소로, 간간이 이들과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15세기말에서 16세기 초 사이, 연행록에는 노하역에서 안남국 사신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여러 수 남아있다. 1481년 홍귀달은 이곳에서 안남국 사신을 만나 시를 주고받았으며, 김정국은 1518년 노하역 문루 벽 위에 안남국 사신의 시가 써여 있었다는 형 김안국의 전언을 기록했다.⁴⁾

하지만 노하역이 숙소로 이용된 횟수는 많지 않고, 명칭 교체 이후에는 기록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신들은 동문을 통해 통주성으로 들어갔으며, 여기서 묵을 경우 대개 서문 밖의 민가를 이용했다. 원나라 이후 통주는 漕運과 倉儲이 중심지로, 그 도시 위상이 수도 다음으로 으뜸이었다. 명나라 시절, 통주성은 평범한 郡邑의 성이 아니라 천자의 성으로 일컬어졌다. (『日下舊聞考』 권 108) 명 건국 직후 徐達의 지휘로 새로 성을 쌓았다. 북쪽이 뾰족하게 나온 모양으로, 민간에서는 북쪽 성벽 안쪽의 燃燈塔(文殊塔)을

1) 김성일, 『朝天日記』 (1577년, 『학봉일고』 권 3) 4월 1일의 기록, 서경순, 『몽경당일사』 (제 2편, 『五花沿筆, 1855』) 11월 26일의 기록 등 사례가 적지 않다. 1883년 간행된 『通州志』 권 首에 실린 역대 황제들의 시에도 ‘通州浮橋’가 자주 보인다. 船橋, 航橋라고도 했다.

2) 위 『통주지』의 『城池圖』 참조.

3) 서거정, 四佳詩集 권7, 『通州潞河驛』. “還投潞河館, 倍覺眼增明. …”

4) 김정국, 思齋集 권4, 『撫言』. “撫言伯氏. 戊寅年以謝 恩使赴京回還. 語余曰. 通州潞河驛門樓壁上. 安南國使臣題詩曰 …” 1519년 김세필이 여기서 차운한 원시가 이 작품이다. (『十清軒集』 권3, 『通州潞河驛, 次安南國使臣韻』)

뚝으로 삼아 노하에 정박한 거대한 배의 형상으로 운위되었다. 1449년 몽골의 침입을 받은 뒤로, 서문 밖 倉儲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신축하여, 新舊 두 성의 체제를 갖추었다. 연행록에 성 서쪽의 이중으로 된 벽과 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이는 이유이다. 1765년 건륭제는 두 성 사이의 성벽 철거를 지시했는데,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중성의 형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명청 시기 통주성은 심양·산해관보다 훨씬 화려하고 변화한 도시였다. 천하의 조운이 운집했고 천자의 곡물 창고 반이 이곳에 있어 재화가 풍부하였으며 행정상의 위상이 높았다. 이러한 조건은 다시 거꾸로 교역과 상업의 발달을 촉진했다. 1780년 8월 1일 통주성을 지난 박지원은 그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동문에서 서문까지 줄곧 5리 사이에 외바퀴 수레 몇 만 채가 딱 차서 몸 돌릴 곳이 없다. 말에서 내려 한 점방으로 들어가니 기려하고 번창함이 벌써 盛京·산해관 따위에 비길 것이 아니었다. 길이 비좁아 간신히 조금씩 나아가 본즉, 市門의 현판에는 ‘萬艘雲集’이라 써어있고, 한길 옆 이층 높은 다락에는 ‘聲聞九天’이라 써 붙였다. 성 밖에는 창고 셋이 있는데 그 제도를 성곽과 같이 해서, 지붕은 기와로 이었고 그 위에는 공기창을 내어서 나쁜 공기가 나가도록 했다. 벽에도 곁 구멍을 뚫어서 습기가 가시게 하고 강물을 끌어들여 창고를 둘러 해자를 만들었다.⁶⁾

이밖에도 박지원은 “노하의 배들을 보지 않으면 帝都의 장관을 알 수 없다.”고 했고, 1833년 김경선은 “성 밖 인가 또한 모두 물에 임했으니, 茶房, 酒樓들이 물빛에 반사되어 그림 같다.”⁷⁾고 했다. 통주는 성의 안팎은 물론

5) 통주성의 연혁과 규모에 대해서는 陳喜波·鄧輝, 『明清北京通州古城研究』, 『중국역사지리논총』 32권 1호, 2017년 1월, 37~47면 참조.

6) 박지원, 『국역 열하일기』, 『관내정사』(한국고전번역원).

이고 운하까지 더하여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함을 과시했던 도시였다. 연행록에는 통주 일대의 변화상이 다채롭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이들은 최근 통주 역사의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⁸⁾

통주성 서문을 나서 8 리를 가면 길이 50m 너비 16m에 달하는 석교가 나왔다. 원래 이름은 永通橋인데, 통주에서 8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하여 八里橋라 일컬어졌다. 서남쪽의 盧溝橋(1188년 건립), 북쪽의 朝宗橋(1447년 건립)와 함께 북경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했던 세 다리 중의 하나로, 1446년에 건립된 것이다. 육로와 수로 양 방면에서 통주에서 북경성으로 들어가는 대량의 화물 운송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가운데 아치는 높이가 8.5m 너비가 6.7m에 달해, 웅만한 크기의 조운선이 지나다닐 수 있었다.⁹⁾ 압록강을 건너 연행사들은 도중 몇 개의 돌다리 - 萬寶橋(1621), 永安橋(1641), 彩亭橋(金代) - 를 건넜는데, 팔리교는 마지막에 건너 가장 큰 다리였다.

1548년 최연은 팔리교를 건너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장강 회수 멀리 닿은 제도의 동쪽이라
 은하수 위의 비교 영통이라 부른다오
 채찍질로 피 흘린 돌 사연 민망하고
 화려함 자랑하는 수흥교도 우스워라
 까치들 수고로이 강물 아니 메워도
 푸른 용 나타나서 물속에 잠겼어라
 사마상여 출세 뜻을 품기도 했지마는
 세상 구한 공적 없음 남몰래 부끄럽네

江淮遠接帝城東
 架漢飛橋號永通
 浪役神鞭羞血石
 謾誇金壁笑垂虹
 不勞靈鵲填河上
 自有蒼龍落水中
 題柱空懷乘駟志
 微才愧乏濟川功¹⁰⁾

7) 한국고전번역원 간, 『연원직지』 권5, 『回程錄·通州記』.

8) 한 예로, 楊昕, 『朝鮮使臣筆下的明代通州』,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년 4월.

9) 연행록 중 이 다리를 大通橋로 표기한 것은 오류이다. 대통교는 북경성 외성의 東便門 밖에 있던 다리로, 여기에는 통제하로 운송된 화물이 하역되는 부두[碼頭]가 있었다.

10) 최연(1503~1549), 『艮齋集』 권3, 『過永通橋』 두 수 중 其 1. 제목에 “다리는 통주성 십리 지점에 있으며, 큰 강 위에 걸쳐 있다. 橋在通州城西十里, 跨大河”라고 부기하

수련 내용은 팔리교 아래를 흐르는 通惠河의 운하 기능, 다리의 규모와 이름 소개이다. 함련에서는 두 개 고사를 원용하였다. 진시황이 동해 위에 석교를 놓아 해 뜨는 곳을 보고 싶어 하자, 神人이 돌을 몰아가며 채찍을 휘두르니 돌에서 피가 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太平寰宇記』) 4구는 1048년에 처음 세워지고 1325년에 석교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길이 500여m에 달하는 蘇州 垂虹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를 괴롭힌 흔적이 없고, 또 실속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다리들도 팔리교만 못하다는 뜻이다. 경련은 다른 각도에서 함련의 뜻을 거들어준다. 까막까치를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푸른 용이 물에 잠겨 다리가 되었다는 것이다.¹¹⁾ 미련에서는 다리의 공능을 救世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은유를 빌려와, 자신도 그러한 포부를 품어보았지만¹²⁾ 이 다리처럼 세상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공적¹³⁾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시상을 거두었다. 건설된 지 100년이 지난 시점, 그 위에 서서 연혁과 공능을 헤아려보고, 조형미에 취했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조선 행객의 모습이 생생하다. 팔리교 일대는 여전히 북경 동쪽의 교통 요지이다.¹⁴⁾

였다.

- 11) 다리에는 난간 기둥의 33쌍 사자 상을 비롯하여, 몇 기의 瑞獸 상을 조각해놓았다. 창룡이 물에 잠겨 다리가 되었다는 고사가 확인하지 못했다. 서수 상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어 의문을 남겨둔다.
- 12) 7구는 司馬相如가 成都의 升遷橋 기둥에, “사마 끄는 높은 수레 타지 않고는 이 다리를 지나지 않으리. 不乘駟馬高車不過此橋.”라 적었다는 고사 (『太平禦覽』 권73, 「地部」 38 橋)를 원용한 것이다.
- 13) 8구의 ‘濟川’은 『尙書』, 『說命 上』에서 가져온 것이다. 殷 高宗이 傳說을 재상으로 동용하면서, “쉬불이가 있다면 그대를 숫돌로, 큰 내를 건너야 한다면 그대를 배와 노로 사용할 것이오. 若金, 用汝作礪; 若濟巨川, 用汝作舟楫.”라 하였다. ‘濟川功’은 제왕을 보좌하여 세상을 구한 공적을 뜻한다.
- 14) 八通線, 京通快速路, 京哈高速道路, 通燕高速道路 등이 이곳을 통과한다. 다리 남쪽에 八里橋站이 있다. 이 일대는 2차 아편전쟁 시(1860) 3만 대군이 영불 연합군에 전멸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팔리교 아래를 흐르는 물줄기는 通惠河이다. 원대 초기(1292~1293) 쿠빌라이의 명에 의해 郭守敬의 주도로 개설된 운하이다. 大通河라고도 하였다. 개착 당시 통혜하는 昌平縣 白浮村의 神山泉에서 시작하여 瓌山泊(지금의 昆明湖)을 거쳐 積水潭과 中南海에 이르렀다가, 文明門(지금의 崇文門)으로 빠져나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지금의 朝陽區 楊閘村에서 동남쪽으로 꺾어진 뒤 通州 高麗莊(지금의 張家灣村)에 이르러 潞河에 합류했다. 길이는 82km에 달했다. 통혜하 개착 후, 조운선이 적수담까지 이르게 되었다. 적수담은 지금의 什刹海와 後海 일대를 아우르며 대운하의 중점 구실을 했는데, 온갖 선박이 몰려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원말 명초 전란과 홍수 등으로 상류가 없어졌다. 이로부터 통혜하는 東便門에서 북운하에 이르는 20km 구간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유량을 통제하여 선박의 통행을 조절했는데, 이를 위해 24개의 갑문을 설치했다. 명대에는 禦河(玉河)로도 불렸다.¹⁵⁾

통혜하를 처음으로 기록한 우리 문헌은 『표해록』이다. 최부는 통혜하를 玉河로 표기했다. 玉河는 통혜하의 명대 명칭인 御河에서 파생한 이름이다. (‘玉’과 ‘御’의 중국어 발음이 같음) 최부는 옥하의 시원과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해놓았다.¹⁶⁾ 통주와 북경 사이를 오간 연행사신들은 팔리교를 지날 때에만 통혜하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들의 기록 가운데는 통혜하 수운의 제도와 방법에 대한 진지한 관찰의 결과도 들어있다.

대통하는 潞河 또는 通惠河라고도 한다. 창평 동쪽에서 발원하여 북경 성을 가로질러 대통교를 거쳐 통주로 흘러가는데, 그 길이가 160리이다. 대통교에서부터 통주 돌 제방까지는 40리이다. 그 사이에 여섯 개의 閘門을

15) 蔡蕃, 『北京通惠河考』, 『中原地理研究』, 1985, 49~57면.

16) 『표해록』 권2, 4월 23일 조. “玉河源出玉泉山, 經皇城大內中, 出都城東南爲大通河, 至高麗莊, 與桑乾河俱入白河.”

설치하여 물을 가두어 수운을 가능하게 했으며, 閘夫 120명으로 지키게 한다. 갑문의 제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듣자니 물이 얕으면 배가 다닐 수 없기에 바위로 독을 쌓아 수위를 높이고, 그 가운데 석문을 만들어 배가 지나갈 때 열며, 평소에는 물을 가두어놓았다가 백성들의 밭에 댄다고 한다.¹⁷⁾

물 양쪽에 제방을 쌓고 가운데 문을 내는데, 너비는 배 두 척이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한다. 양 독에 돌을 수직으로 쌓고, 위에서부터 돌을 파내어 [斷石] 閘道를 만드는데, 깊이와 너비가 한 자 남짓이다. 아래로는 강바닥까지 닿게 한다. 강바닥에도 돌을 가로 놓아 문지방을 만들고, 그 곁은 갑도와 들어맞게 한다. 큰 나무로 갑문을 만드는데, 양쪽 끝을 깎아 돌 홈에 들어가게 하고, 위와 아래 부분은 평평하게 깎아 이어 붙임에 빈틈이 없게 한 뒤에, 뉘어 포개어 독의 높이와 나란하게 한다. 조금씩 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내와 도랑의 물만을 모아 너덧 길 깊이의 바다를 만들 수 있다. 갑문의 간격은 지세에 달렸으니, 지세가 고른 곳에는 천보에 하나를, 지세가 낮은 곳에는 수백 보마다 하나씩 설치하여 지표 높이의 차이를 없애는데 반 길을 척도로 삼는다. 大通橋의 경우 통주에서 40리 지점에 있는데, 지표 높이의 차이가 다섯 길이므로, 갑문 10개를 설치해야 배의 운행이 가능하다.¹⁸⁾

위는 1749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북경을 다녀온 兪彥述(1703~1773)의 증언이다. 관심은 있으나 관찰에는 이르지 못하고, 문헌에서 읽거나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옮겨 적은 수준이다. 아래는 홍대용의 1765년 보고의 일부이다. 선박의 제도와 수운의 공능, 운영 방법과 水車의 제작 방법과 작동

17) 『松湖集』 권6, 『燕京雜識』. “大通河, 一曰潞河, 一曰通惠河. 源出昌平州東, 貫北京城, 由大通橋而下至通州, 凡一百六十里. 自大通橋至通州石壩四十里, 中設六閘蓄水, 以濟輓運, 設閘夫一百二十名以守之. 閘之制雖未得目見, 而槩聞水淺則難以行舟, 故以石爲防, 蓄水使高, 中作石門, 舟過時則開之, 平時則貯水, 以灌民田.”

18) 홍대용, 『국역 담헌서외집』 권10, 『燕記·器用』.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일부 수정)

원리를 소개한 앞 부분은 생략했다. 인용문은 각개 水閘의 제작 방식과 더불어 설치 간격의 조절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대개의 연행사들은 무심히 지나쳤고, 그중 일부는 겉모습만 스쳐보고 지나가며 순간의 인상만 남겼고, 또 일부는 건문의 내용을 옮겨 적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홍대용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답게 운하 운용의 관건을 水閘 제도로 보아, 그 제도와 운영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았는데, 이는 연행 전후의 연구와 현장에서의 관찰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3. 마음속 깊이 새겨진 장소, 黃金臺와 金臺夕照

팔리교를 지난 사행은 大王莊이나 八里堡에서 휴식했다. 연교보에서 묵은 사행은 점심을, 통주에서 출발한 사행은 이곳에서 아침을 먹었다. ‘대왕장’ 명칭은 이 일대가 청나라 공경 왕자의 묘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여러 연행록이 밝히고 있다. 팔리보란 지명은 조양문과의 거리에서 유래한다. 이제 1시간이면 조양문을 통해 북경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만 남은 셈이다. 그런데 이 사이 연행사들의 관심이 높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장소가 있다.

연행록 지명으로는 팔리보와 新橋 사이, 현재 북경의 지명으로는 八里莊과 東大橋站 사이에는 金臺夕照站, 金臺里, 金臺路 등의 명칭이 눈에 띈다. 金臺夕照站 D출구로 나오면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朝陽區 東三環中路 23號 財富中心大廈 뜰)에 1751년 건륭제가 지은 시를 새긴 ‘金臺夕照碑’가 서있다. 모두 전국시대 燕나라 昭王이 천하의 현사들을 모아 국력을 키웠다는 黃金臺 고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연행록에는 이곳을 지나며 황금대 고사를 언급한 기록이 전혀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쯤에서 오랜 세월 연행사들이 흠모했고 찾아 나섰던 황금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북경은 전국시대 열국의 하나이되 변방 약소국이던 燕의 도읍이었다. 기원전 312년 昭王은 잇단 내란과 외침으로 파탄 난 나라를 맡게 되었다. 그는 복수설치를 위해 천하의 현사들을 얻으려 했고, 郭隗를 찾아가 그 방법을 물었다. 궤외는 옛날 임금의 천리마를 얻은 우화를 들려주었고, 소왕은 궤외를 위해 궁실을 짓고 스승으로 섬겼다. 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樂毅와 鄒衍 같은 천하의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다. 28년의 준비 끝에 연나라는 부강해졌고, 소왕은 처음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¹⁹⁾ 이후 昭王은 북경을 표상하는 역사 인물이 되었고, 우리 지식인들도 북경 하면 으레 그 사연을 떠올리곤 했다.

백마 타고 떠난 님 노닐며 아니 올 새	郎騎白馬遊不歸
황금대 앞 뜰에는 풀만이 우거졌네	黃金臺前草萋萋
두견화는 옛 가지에 또다시 피었건만	杜鵑花開去年枝
언제나 그 말울음 다시 듣게 되려나	何時更聞郎馬嘶 ²⁰⁾
연도를 떠올리니 그 기억 아득해라	回首燕都更渺茫
황금대 위에는 또 석양이 비치겠지	黃金臺上又斜陽
교문 안 오백 명 학사 중 어느 누가	橋門五百青衿子
중흥송 지어 내어 대당에 건주려나	誰頌中興比大唐 ²¹⁾

위는 이제현(1287~1367)이 王煦(1296~1349)에게 보낸 시로, 북경(당 시에는 大都)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색(1326~1396)이 고려에 돌아와 연경을 떠올리며 지은 시이다. 두 작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시어는

19) 昭王의 사연이 가장 자세하게 실린 문헌은 『전국책』이다. 『사기』, 『燕世家』에 실린 내용은 『전국책』의 내용을 2/5 정도로 축약한 것이다.

20) 이제현, 『益齋亂稿』 권4, 『寄雞林郡公』. 백마 탄 님은 王煦를 가리킨다.

21) 이색, 『목은고』 권6, 『憶燕都』. 3구의 橋門이 어디인지는 미상이다. 4구에는 당나라 때 元結이 『大唐中興頌』을 지은 일이 원용되었다.

黃金臺인데, 이는 북경의 환유 표현이다. 아래 시에서 둘째 구는 燕都八景의 하나로 꼽혔던 ‘金臺夕照’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국책』이나 『사기』에 보이지 않던 ‘황금대’가 어떻게 고려 지식인의 시에 나타났을까? 아울러 조선 연행사들도 종종 차운하여 지었던 연도팔경 시의 전승 경위는 설명될 수 있을까?

소왕의 곽외에 대한 예우는 처음 ‘築宮’, 다음에는 ‘築臺’로 나타난다. (孔融, 『論盛孝章書』) 黃金臺는 孔衍(268~320)의 『春秋後語』에 이어, 남북조 시대 劉宋 鮑照(414~466)의 『代放歌行』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어찌 흰 벽옥만 내릴 것인가, 황금대라도 쌓을 터인데. 豈伊白璧賜, 將起黃金臺.” - 이백은 “연 소왕이 곽외를 맞아, 황금대를 쌓아 올리자, 극신은 조나라에서 오고, 추연은 제나라를 떠나왔다네. 燕昭延郭隗, 遂築黃金台. 劇辛方趙至, 鄒衍復齊來.” (『古風』 其 15, 752년)라고 노래했는데, 이 시기에 오면 황금대설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문사들의 사랑을 받았다. 황금대는 燕臺, 燕昭臺, 招賢臺, 賢士臺 등의 이름으로도 불려졌다.²²⁾ 이런 현상은 황금대의 위치와 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황금대의 위치에 대해서는 任昉(460~508)의 『述異記』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북위 酈道元(472~527)의 『수경주』에서 易水 근처로 추정되었다. 연 소왕에 대한 흥미가 더해지면서 시대마다 황금대의 위치가 부회되었고, 이런 저런 근거에 의해 황금대 터로 추정된 것만 북경과 하북성 일대에 8곳이나 되었다. 그런데 최근 황금대의 존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연나라의 遷都 양상과 후대의 多都制 운영, 『수경주』의 기록과 두 차례 걸친 발굴 보고서의 내용, 여기에 명청 시기의 지리지, 개인 기록, 비문, 민간 전설 등을 두루 고려하여, 기존의 견해를 모두 부정하고 易水 가 武陽城 터의 한 지점을 황금대 터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²³⁾

22) 周士琦, 『黃金臺與金臺夕照』, 『文史雜志』, 1993년 2기, 13~14면.

23) 艾虹·呂曉青, 『黃金臺位置考辨』, 『保定學院學報』, 2017.

이러한 연구 성과는, 황금대는 소왕에 대한 후대의 흠모 속에서 미화된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있었다고 해도 그 자리가 지금의 북경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지만 북경 황금대에 대한 설화적 믿음은 역사 사실과는 별개로 면면히 존속되어 왔으며, 역사적 계기에 의해 강화되었다. 금나라는 1151년 북경을 中都로 삼았는데, 그 뒤 章宗(1189~1208 재위) 시절 燕京八景이 제정되었다. 8경 중 하나가 道陵夕照였다.(道陵은 장종의 무덤) 금대석조는 종종 도릉석조를 대신했으며, 청나라 건륭 시기(1751년) 8경의 하나로 완전히 굳어졌다.²⁴⁾ 이후 금대석조는 춘분이나 추분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호황을 누렸다.²⁵⁾

북경에는 夕照寺, 金臺書院, 조양문 밖 언덕 등이 황금대 터라는 설이 전승되어 왔는데, 건륭은 조양문 밖 현장을 둘러본 뒤 이곳을 황금대 터로 확정했다. 8경 각각에 대한 시를 짓고, 시를 새겨 비석을 세웠는데, 이로부터 팔경의 내용이 고정되었다. 그중 금대석조비의 종적이 사라졌다. 1935년 출판된 『舊都文物略』에 “건륭제가 지정한 금대석조가 조양문 밖 동남쪽 2리쯤의 苗家地 북쪽 언덕에 있다.”는 기록이 있어 발굴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이로부터 이 일대는 금대석조의 장소로 인식되어, 금대로, 금대서로, 금대북가, 금대리 등의 지명이 생겼다. 비석은 2002년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²⁶⁾

고려 이후 북경을 찾은 많은 문사들은 으레 燕昭王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나아가 黃金臺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연행록에 보이는 바 당시 북경의 황금대 터로 전승되었던 곳은 夕照寺와 조양문 밖의 특정

24) 중국의 포털사이트 百度百科의 ‘燕京八景’ 조에는 건륭 이후 도릉석조가 금대석조로 교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기록에서 1751년까지 이승소의 『次北京八景詩』(1481년, 『삼탄집』 권8) 이후 ‘금대석조’가 팔경의 하나로 정확하게 지칭된 경우가 6차례에 달한다.

25) 高巍, 『燕京八景析說』, 『북경고도역사문화강좌』, 2009.4, 211~229면.

26) 王銘珍, 『金台夕照御制碑出土』, 『北京檔案』, 2007.8, 50~51면.

지점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조양문 밖에 있었다는 흙무덤도 해자 (동)남쪽 어딘가로 기술되어 있어 지금의 金臺夕照站 일대와는 거리가 있다. 간혹 서쪽 德勝門 밖 어딘가로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황금대 터를 찾은 사람은 없었다. 昭王은 약소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오랜 세월을 걸쳐 국가의 수치를 씻은 이상적인 군주였고, 황금대는 그러한 소왕의 지도력을 표상하는 조형물로 애초부터 마음에 새겨진 장소였기 때문이다. 아래는 황금대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盧以漸 군은 국내에 있을 때 經術과 行檢으로 쳐 주었고, ① 또 『춘추』의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격하는 대의에 엄격하였으므로 길을 오면서도 사람을 만나면 滿·漢을 불구하고 한결같이, “되놈”이라고 불렀다. 거처 온 산천이나 누대들은 모두 누린내 나는 고장이라 하여 구경도 하지 않았다. ② 그러나 고적으로서 黃金臺나 射虎石·太子河 같은 곳은 길을 돌아 가는 데나 또는 이름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파고 들어서 찾아내고야 만다. 어느 날 나와 황금대를 구경하기로 약속하였다. 나는 곧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물었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또 옛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이야기들은 다 같지 않았다. 『述異記』에 이르기를, “연 소왕이 광외를 위하여 쌓은 축대로서 지금의 幽州 땅인 燕王의 옛 성 안에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賢士臺라고 부르고 또는 招賢臺라고도 한다.” 하였으니, ③ 지금의 북경이 곧 冀州 땅이고 본즉, 연왕의 옛 성이란 데는 어느 곳에 있는지 나는 모를 일이니, 하물며 이른바 황금대일까보냐. 또 『太平御覽』 중에는, “연 소왕이 천금을 대 위에 두고 천하의 현사를 초청했다 하여 황금대라고 불렀다.” 하였다. 그러면 뒷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그 이름만 전할 뿐이요, 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④ 노군은 어느 날 몽고 사람 博明으로부터 얻었다는 『長安客話』 중에서 초록한 것을 나에게 보인다. “朝陽門을 나서서 남쪽으로 못을 돌아가면 동남쪽 모퉁이에 높다랗게 솟아 있는 흙 둔덕이 바로 황금대라 한다. 해가 누엿누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 옛일을 슬퍼하는 선비로서 이 대 위에 올라간 자는 갑자기 천고의 고사를 회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거닐게 된다.” 노균은 이때부터 서글퍼하면서 구경을 파하고 다시는 황금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⑤ 노는 날 틈을 타서 노균과 함께 東嶽廟의 연극 구경을 가기 위해 같은 수레로 조양문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太史 高棅生을 만났다. 그는 簑軒 凌野와 함께 났는데, 이르기를, “지금 황금대를 찾아 가는 길입니다.” 한다. 능은 본시 월중(越中, 절강 지방) 사람으로서 역시 기이한 인물이었다. 북경에 처음 와서 고적 구경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동행을 청한다. 노균은 매우 좋아하여, “하늘이 정해 주신 연분이야.” 하고, 가서 본즉, 두어 길 되는 허물어진 흙 둔덕이 주인 없는 황폐한 무덤과도 같으면서도 억지로 이름을 황금대라고 불렀다. 별도로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²⁷⁾

글 순서대로 의미를 따져보자. ①은 추어주는 말 같지만, 노이점은 연암이 말한 上士에 해당되는 인물로 그 의미가 묘해진다. ②는 노이점이 먼 과거의 기록을 중시하는, 즉 이른바 중화문명에 집착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①과 ②를 종합하면, 노이점은 당대 청나라의 현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관심이 과거 한족 문명에 국한되어 있는 인물이다. ③은 박지원의 생각, 즉 ‘황금대’란 실체가 없는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다. 그는 처음부터 황금대의 존재를 의심했다. ④는 다시 노이점에 대한 서술이다. 그가 슬퍼한 이유는 황금대란 있다고 해도 허물어진 흙무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이점은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임을 말했는데, 이는 당대 조선 문사들을 겨냥한다. ⑤는 황금대 터 확인 경위이자, 동시에 그 허구성에 대한 지적이다. 이 글은, 황금대란 독서를 통해 내면화된 장소이며, 사람들이 그 실체에 집착하지만, 외형에 대한 집착은 허사리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금대석조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문이 있어 제기해 둔다. 첫째, 조양문 동쪽 일대에 황금대 관련 지명이 생기게 된 연유를 謊糧臺 설화와 결부시

27) 박지원, 『국역 열하일기』, 『黃圖紀略·黃金臺』. (한국고전번역원)

킨 해석이 있다. 18세기에 동악묘 동쪽 5리 일대를 謊糧臺라고 했는데, 이 지명은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 실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화와 관련이 있었다.²⁸⁾ 황금대의 기원을 황량대에서 찾은 것이다.²⁹⁾ 둘째, 현재 金臺夕照碑의 위치는 과거 연행로와 500m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1751년 이후면 연행사들의 북경 행적이 비교적 자유롭던 시절이다. 황금대에 대한 연행사들의 높은 관심, 일군의 지식인들이 보여준바 일행을 벗어나서라도 명승지를 유람하거나 오랜 필담을 나누었던 과감한 행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석에 대한 일언척구의 언급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이는 비석이 종적을 감추었다가 나타난 일만큼이나 의아스러운 일이다.

4. 조복을 착용하고 이국문화를 체험하다, 東嶽廟

팔리보에서 6리 지점에 돌다리 新橋가 있었다. 관련 언급은 1712년 김창업의 『연행일기』에서 시작되어 이후 『열하일기』 등 18세기 문헌에 간간이 나타난다. 김창업은 이 다리에 대해, “세 대로가 이곳에서 모이는데, 우리가 온 길은 그 가운데 길이다. 여기서부터 저자가 잇달아 있고 거마가 붐볐다.”고 했다. 지리 정황이나 지명을 고려하면, 지금의 지하철 6호선 東大橋站이 신교 자리이다. 東大橋站은 남쪽으로부터 차례로 東大橋, 朝陽門外大街, 關東店北街가 모이는 교차로에 놓여있으며, 조양문과 통주 사이를 잇는 길은 가운데 朝陽門外大街였다. 지금까지 東大橋의 터나 명칭 연원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³⁰⁾

28) 『열하일기』, 『口外異聞, 謊糧臺』; 서호수, 『연행기』 권4, 9월 4일 조. 황량대에 대해서는 뒷날 신채호도 주목한 바 있다. (『조선상고사』)

29) 高巍, 앞의 논문.

30) 최근 동대교의 명칭과 위치를 탐문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東大橋 : 沒有橋 有座東嶽廟』, 『北京日報』 2017년 1월 12일. (http://bjrb.bjd.com.cn/html/2017-01/12/content_

김창업은 신교에서부터 저자가 잇달아 있고 거마가 봄볏다고 했는데, 이는 여기서부터 조양문까지 상업지구, 즉 이른바 關廂이었음을 말해준다. 관상이란 금나라 中都 이후 발달한, 상업이 발달하고 고관 富賈 들이 많이 살았던, 북경성 문 밖 대가와 그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을 의미한다.³¹⁾ 신교와 조양문 사이에는 東嶽廟가 있어 왔다. 동악묘 건립은 변화한 상업 지구라는 입지 조건과 관련이 깊다. 건립 이후에는 반대로 동악묘가 이 지역의 상업 발달 및 문화 번창을 촉진했다. 동악묘는 연행사들이 북경성에 들어가기 전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그 안을 관람하며 중국의 문화를 체험했던, 연행의 역사에 있어서도 의미가 깊은 장소이다. 연행록에 보이는 동악묘 관련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력과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한다.

동악묘의 시원은 고대 산악숭배이다. 태산은 舜임근 시절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 이후 왕권이 강화되고 方士 계층이 성장하면서 태산의 지위도 자연 숭배의 차원을 벗어났고, 초기의 순례 제도는 조정의 封禪大典으로 격상되었다. 진시황과 한무제는 태산에서 封禪 의식을 거행했다. 이 무렵 저승으로서의 태산 관념이 형성되었고, 태산은 생사를 주관하는 신의 거처가 되었다. 당송 이래 태산은 조정과 관부의 조직을 갖춘 地府로 상상되었고, 이는 동악묘에 36獄 72司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동악신의 도시 진입은 송나라 眞宗(997~1022 재위)이 태산을 크게 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여러 도시에 동악묘가 지어졌고, 동악신은 城隍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새로운 主管神이 되었다. 북경에는 “살아서 동악묘에 가지 않으면, 죽어서 갈 곳이 없다. 活着不去東嶽廟, 死了沒着落.”는 말까지 유행했다.³²⁾

북경 동악묘는 원대 延祐 연간(1314~1320), 당시 흥성했던 玄敎의 大宗

96262.htm)

31)王永斌,『北京的關廂鄉鎮和老字號』,東方出版社,2003,135~152면.

32)肅放,『東嶽廟與城市社會信仰空間的建構 - 以北京東嶽廟爲例』,『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9년 1월, 92~97면.

師 張留孫(1248~1322)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이 사업은 제자 吳全節(1269~1346)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1328년 침전에 『昭德殿』이 사액되면서 일단락 된다. 張留孫이 죽자(1322) 英宗은 趙孟頫(1254~1322)로 하여금 비문을 짓게 했고, 이 글은 빗돌에 새겨져 동악묘 내 장유손 사당 앞에 세워졌다. (1329, 간칭 『張留孫道行碑』) 1592년 神宗은 묘문 앞 동서 패루에 ‘宏仁錫福’, ‘靈嶽崇祠’을 사액했고, 1607년 묘문 건너편에 유리 패루를 세워 남북 양면에 각각 ‘秩祀岱宗’, ‘永延帝祚’ 편액을 붙였다. 이때 동악묘의 형태가 대략 완성되었다. 1900년 의화단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군대가 주둔하면서 폐쇄되었고,³³⁾ 1985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1999년 춘절에 정식으로 개방되었다.³⁴⁾ 묘문 앞 동서 패루 사이로 朝外大街가 나있었는데, 바로 연행사들이 오갔던 길이다.

동악묘는 창건에서 중건에 이르기까지 황제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황가 祠廟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 자연스레 조정 중신과 환관들의 출입이 잦았다. 조선과 베트남 등 외국 사신들의 행보도 그 위상을 높여주었다. 동악묘는 황가 사원이면서 시민 문화의 중심지였다. 기록상 天歷 연간(1328~1330)에 시작된 이곳의 廟會³⁵⁾는 북경 지역에서 가장 이르고 영향력이 큰 것이었다. 묘회는 음력 3월 15일 시작하여 보름 동안 계속되었는데, 동악대제의 생일로 알려져 있는 3월 28일이 그 절정이었다. 묘회는 통혜하의 조운과 어우러져 상업의 발달을 촉진했고, 이곳은 각종 행업 조직과 신앙 활동의 중심이 되었으며, 서북쪽의 行業祖師殿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³⁶⁾

33) 李錦萍 역, 『1927年的北京東嶽廟』, 『북경민속논총』 제2집, 2014, 173~189면. (원문은 Janet R. TenBroeck, *The Peking Temple of the Eastern Peak* (Monumenta Series, 1964))

34) 陳巴黎, 『北京 東嶽廟』, 中國書店, 2002, 1~15면.

35) 묘회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는 寧欣, 『廟會與市場』, 『文史智識』, 2006 참조.

36) 李彩萍, 『北京東嶽廟與京城文化』, 『文化學刊』, 2011년 1월 제1期, 100~104면.

연행사들은 대개 동악묘에 들러 조복으로 갈아입고 북경 입성을 준비했다. 간혹 동악묘가 아닌 彌勒院에서 환복했다는 기사도 보이는데,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미륵원은 동악묘와 인접해 있거나 서로 통하는 사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유가 있을 경우 사신들은 휴식하면서 이국 문화를 관찰했다.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온 건 낮선 종교 문화였고, 묘회 기간에는 생활 문화와 상업 활동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연행록의 동악묘 기사 중 역사 특성과 사회 풍정을 엿볼 수 있는 몇 조목만 뽑아 본다.³⁷⁾

① 그윽한 전각들이 그 절로 한 세계라	祕殿沈沈自一天
제 각각 다른 모습 모두가 신선일세	殊形異狀盡神仙
문 앞의 수레와 말 언제나 끊어질까	門前車馬何時絕
복 빌며 꾸리는 삶 하나같이 애듯하네	丐福營生摠可憐 ³⁸⁾

② 초닷새 날 아침에 길을 떠나, 북경 조양문 밖에 이르렀다. 동악묘에 말을 멈추었다. 동악묘는 태산 신을 제향하는 곳이다. 천만 개 수많은 문들, 그윽한 전각들을 담장이 둘러는데 지극히 장대하고 수려하다. 각각의 방에는 도사가 있어 이름으로 내건 신격을 맡고 있다. 거처가 정갈하여 볼 만했다. 한 곳에 이르니 큰 죽자 두 폭이 있기에 보니 米萬鍾(1570~1628, 서화가)의 필적이다. 각각 7언 절구를 썼는데 글자의 획에 힘이 넘치는 게 자못 公孫大娘이 칼춤을 추는 필세가 있다. 역관을 시켜 백금을 주고 사려 했으나, 주인이 웃으며, 천하의 보물이니 백금은 가당치 않으며 천금을 준대도 다른 나라에 팔아 보낼 수 없다면서 머리를 흔들다.³⁹⁾

37) 1679년 심양 경유로 사행로가 변경되기 전까지 연행사들은 廣寧城 동쪽 望城崗 위에 있었던 동악묘를 들러보곤 했다. 이 점 동악묘 기사를 살펴볼 때 유의해야 한다.

38) 이색, 『牧隱詩藁』 권2, 『東嶽廟』. (1355)

39) 이만영(1604~1672), 『雪海遺稿』 권3, 『崇禎丙子朝天錄』 11월. “初五日早行. 到北京朝陽門外. 歇馬於東嶽廟. 廟即泰山神祀享之所也. 千門萬戶. 曲房周垣. 極其壯麗. 各房皆有道士爲名者主之. 居處精洒可觀也. 到一處. 看有大簇二幅. 乃米萬鍾筆也. 每幅書七言一絕. 字畫甚壯. 頗有大娘舞劍之勢. 余使舌官. 以百金要買. 主者笑曰.

③ (1662년 9월 15일)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들이 대거 몰려든 까닭에 가까운 고을의 서책들이 다 모였다. … 동악묘 앞에 이르렀다. 시장의 점포 사이마다 사람과 말이 미어질 뿐 아니라, 보름을 맞아 향을 사르는 인파가 몰려 발붙일 데가 없었다. 겨우 射亭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성에 들어갔는데, 흙먼지가 자욱하여 눈을 뜨지 못해 간신히 옥하관에 도착했다.⁴⁰⁾

④ 뉘 집 젊은 아낙인가 머리를 곱게 빗고	誰家少婦玉梳兒
천천히 정성 다해 향 사르고 질을 하네	頂禮焚香獨自遲
소곤소곤 속삭이며 무언가를 비는데	呢呢細言何所訴
남들은 모르도록 신만이 알 수 있게	不教人聽要神知 ⁴¹⁾

①은 이색이 1355년 북경에 들어갈 때 지은 시로, 북경 동악묘에 대한 우리의 최초 기록이다. 동악묘 창건 시기는 원 간섭기로 이제현(1287~1367)과 이곡(1298~1351)이 북경에서 활동할 무렵인데, 두 사람은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 시가 지어진 시점은 동악묘 건립이 완성된 1328년 으로부터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곳을 찾아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는 1636년 11월 5일의 증언이다. 동악묘의 구조와 기능은 이색의 시대로부터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의 서화가 米萬鍾의 글씨를 두고 거래하는 장면이 눈에 띈다. 정황으로 보아 동악묘는 일종의 시장 기능을 했고, 그 품목 중에는 서화도 들어있었으며, 상거래에는 조선 상인들도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天下之寶。豈直百金。雖千金不可賣送他國。掉頭不肯。”

40) 정태화, 『양파유고』, 권14, 『음빙록』, 임인 9월 15일. “科舉士子多會之故。近邑書冊皆集。… 至東嶽廟前。非但市肆之間人馬填咽。月望燒香。士女紛沓。不得接足於廟門。迤往射亭。改服入城。塵土滿面。未能開眼。艱到玉河館。”

41) 이기지, 『일암집』 권1, 『燕京雜詩』. “동악묘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신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질을 하며 기원하는 것이 몹시 간절해 보였다. 東嶽廟中。見彩服女子禱神前。且拜且禱。情甚懇至。”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③은 청나라 초기(1662년) 정태화의 기록이다. 몇 글자 되지 않지만, 왕조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되어 정국이 불안정한 시점임에도, 시장은 변함없이 번창하여 사람들이 들끓고, 한족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과거가 설행되고 거기에 부응하여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들었으며, 15일 묘회를 맞아 향불을 사르는 사람들까지 운집하여,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동악묘 일대의 복합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만 보면 명청 교체의 충격이나 혼란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④는 1720년 李器之(1690~1722)가 목도한 동악묘의 풍경 소품이다. 젊은 여인이 절을 하며 무언가를 기원하는데, 유독 느린 것이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심는 것으로 느껴져 인상이 깊었던 것이다. 이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廟會 풍속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일대의 떠들썩한 場市 광경은 사라졌지만, 동악묘는 예전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5. 북경 입성과 귀국 제일보를 댄다, 朝陽門

동악묘에서 관북으로 돌아오며 잠깐의 휴식을 취한 사행에 남은 거리는 이제 朝陽門까지의 700여m, 그리고 조양문에서 숙소까지의 5km 정도이다. 압록강을 건넌 뒤에만도 한 달에 걸친 1950리(약 1000km)의 긴 여정⁴²⁾이 끝나가는 지점이다. 명청 시기 사행이 들어갔던 북경성 동문 이름은 朝陽門이었고, 원나라 때에는 齊化門이었다. 조양문의 내력과 사연을 검토하기 전에, 통주와 조양문 사이의 길에 대해 짚막하게 언급하려고 한다.

고대 북경성의 동문은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관문이었다. 이 통로

42) 사행마다 사정에 따라 소요 일수와 거리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1712년 김창업의 경우는 31일이 걸렸고(11월 26일~12월 27일), 밭아 간 거리는 1,949 리였다. (『연행일기』 권1, 『왕래총록』)

가 제대로 닦이기 시작한 시기는 원나라가 북경에 도읍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조양문 터에서 東大橋站에 이르는 길은 朝陽門外大街(朝陽路) 중에서 동대교참과 管莊村 사이 구간, 그리고 관장촌에서 팔리교를 지나 통주의 新華西街로 이어지는 20km의 길이 옛날 사행로이다. 이 길을 명청 시기에는 國門東孔道 또는 朝陽門外大街라 했고, 朝陽門關外石道로 불리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石道’이다. 18세기 연행록에는 석도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한 예만 보자.

통주에서 북경까지는 40리이다. 길은 모두 돌을 깔았으나 밤낮으로 수레 바퀴에 닳아서 이따금 움푹 팬 곳이 있는데, 수레가 그 위로 가면 기우뚱거리 자못 괴로웠다. 다시 몇 리를 가니 길 오른쪽에 누런 기와로 이은 겹처마의 큰 비각이 있다. 이것은 곧 朝陽門 밖의 石路를 중수한 데 대한 碑記로서 건륭 36년에 어제한 것이었다.⁴³⁾

석도는 지대가 낮아 자주 침수되는 폐해를 없애고, 아울러 통주와 북경 사이 물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닦인 것이다. 길이는 21km에 달했으며 폭은 4m 전후였다. 옹정 시기인 1729년 공사가 시작되었고, 1733년에 완성되었으며, 건륭 36년(1771) 개수되었다. 이 길이 닦인 후 운송 비중이 통해 하 물길보다 높아졌다.⁴⁴⁾ 길의 조성 경위는 옹정제가 지은 『御製通州石道碑文』⁴⁵⁾에 담겨 있다. 『通州石道碑』(1733년 건립)는 현재 팔리교 남단에서 동쪽으로 430m 지점에, 『重修朝陽門石道碑』(1761년 건립)는 正福莊村 조양로 가에 있다. 사진 기록에 따르면 이 석도는 1901년까지는 원형을 지니고 있었으며, 1920년대부터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燕나라 멸망 후 북경의 도시 위상이 높아진 시기는 遼나라 때였다. 938

43) 김경선, 『국역 연원적지』 권2, 『出疆錄』, 1832년 12월 19일. (한국고전번역원)

44) 李軍·謝夢沖, 朝陽門與朝陽門外大街追述, 北京檔案, 2005년 제3기, 42~43면.

45) 『통주지』 권 首, 『宸章』.

년 요 태종은 幽州를 南京으로 승격시켰고, 이곳을 燕京이라고도 했다. 金은 요의 제도를 계승했고, 1151년 海陵王이 이곳을 수도(中都)로 삼았다. 원 세조(1260~1294 재위)는 등위 초기부터 북경 천도를 계획하고 대규모 궁성을 축조했다. 당시 성의 동남쪽 문의 이름이 ‘齊化’였다.⁴⁶⁾

‘齊化’의 유래와 의미는 보통 東嶽神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天齊는 고대 제나라 천신의 이름이었다. 당 현종은 태산 신을 天齊王으로 봉했고, 그 뒤로 동악은 天齊로 여겨졌다. 동쪽은 만물이 시작되는 곳이자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라는 관념 속에서, 동악신은 만물의 생산과 四民의 화육을 주관하는 신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齊化’는 ‘천제가 낳고 기른다’는 뜻의 ‘天齊生化’를 줄인 말이다. 동악묘 남쪽 2km 지점에 日壇을 건립한 것도, ‘해는 동방에서 나와 생명을 주관한다 [日出東方, 仍爲主生]’는 뜻을 담은 것이다.⁴⁷⁾ 원 황실의 도교 숭봉을 고려하면, 天齊의 그런 권능에 통치의 이상을 담았다고 해석하면 별 무리가 없다. 다만 이 해석의 경우, 제화문의 건립 시점과 동악묘의 건설 시기 사이에 생기는 50년 정도의 간극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⁴⁸⁾

제화문은 원나라 시절 고려 사람들이 들고 나는 문이었는데, 남아있는 자료는 대도에 드는 감회보다 문을 나서는 흥분을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1306년 高世를 비롯한 몇몇 신료는 충렬왕에게 “전하를 모시고 동쪽 齊化門을 나가기를 원할 뿐”⁴⁹⁾이라고 했는데, 제화문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다. 제화문을 나선다는 것은 고려로의 귀국을 의미한다. 1364년 李公遂가 연경 제화문을 나섰다고 한 것⁵⁰⁾도 같은 의미이다.

46) 陳宗蕃 편저, 『燕都叢考』, 北京古籍出版社, 2001, 『제2장 城池』(10~17면) 참조.

47) 曹彦生, 北京朝陽門外大街溯源, 북경민속논총, 2013, 135~139면.

48) 원대 대도 궁성의 건립은 1270년 즈음에 완공되었으며, 궁문의 이름도 이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악묘가 건립되기 전에, ‘동쪽’이라는 방위와 관련하여 동악신 관념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49) 『고려사절요』 권23, 충렬왕 32년.

倉 등이 있었는데, 해운과 녹미는 지명으로 남아있다. 1915년 북양정부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 옹성을 허물고 철로를 건설했다. 해방 초기 대규모 도시 계획과 건설에 따라 성문까지 철거되었다.⁵⁴⁾ 아래는 조양문을 지나는 조선 사신의 모습이다.

새벽에 행장 꾸려 통주를 떠나	曉裝發通州
의욕 넘쳐 서쪽으로 치달려왔네	西馳行意王
순식간 조양문에 이르렀는데	倏至朝陽門
천 길 높은 성벽 우람하여라	城高千仞壯
중사가 행인들을 기찰하는데	中使讖出入
창들이 삼엄하게 숲을 이룬다	檠戟森相向
고삐 늦춰 지나치지 못하노니	徐驅不敢過
하나하나 이름을 크게 외치네	一一名字唱 ⁵⁵⁾

동악묘 남쪽의 한 민가에 도착해서 관대를 착용했다. 조양교를 지나 조양문에 이르니 원나라 때의 제화문이다.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 上譯이 은을 준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⁵⁶⁾

세 사신은 드디어 吉服(예복)으로 갈아입고 차례로 말을 타고서 朝陽門으로 해서 들어가니, 즉 外東門이다. 樓門은 3층으로 되었는데 청기와로 덮였다. 옹성 위에도 2층 누각이 있는데 난간은 만들지 않았다. 사신 일행이 성문에 들어서면 항상 수레와 말에 막혀 만나질 동안이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 보니 그렇지 않다. 아마도 외국에서 바치려 온 사람이나 원근의 장사꾼들이 27일 이전에 모두 들어갔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혹 물품의 풍성함이 전날만 못해서 그런 것인가?⁵⁷⁾

54) 李軍·謝夢沖, 앞의 글.

55) 소세양, 『陽谷集』 권3, 『玉河館 舊名烏蠻驛』(1533)의 초반 부분.

56) 민인백, 『苔泉集』 권3, 『朝天錄 上』 萬曆 23년(1595) 8월 8일.

57) 이의현, 『국역 경자연행잡지 상』(1720, 한국고전번역원).

각각 1533년 소세양, 1595년 민인백, 1720년 이의현이 남긴, 조양문 안으로 들어가는 풍경의 일단이다. 소세양의 시에는, 연행 막바지 북경성에 이른 흥분과 조양문의 외관, 그리고 성문 통과시의 기찰 모습이 담겨 있다. 민인백의 기록에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 웅성 밖 해자에 설치되어 있던 弔橋를 건너야 했던 과정, 그리고 명나라 말기 국가 체제가 무너지면서 뇌물이 극성했던 정치 상황을 잘 보여준다.⁵⁸⁾ 이의현의 기록은 청나라가 康熙 치세기로 접어들어 외국 사신에 대한 태도가 여유로워지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조양문의 손쉬운 통과는 1712년 김창업의 기록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뇌물이 극성하던 명말이나 정국이 혼란스러워 기찰이 심하던 청초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⁵⁹⁾

명청 시기 연행사들에게 조양문은 입문의 설렘보다는 출문의 흥분이 훨씬 강했던 장소였다. 1714년 3월 초 귀국길에 오른 조태채(1660~1722)는 조양문을 나서는 흥분을, 시원하기가 하늘을 나는 듯하다고 했다.⁶⁰⁾ 1778년 6월 이덕무는 조양문을 나선 뒤 말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기뻐했다.⁶¹⁾ 1829년 2월 박사호는 그 감동을 “조양문을 나섰는데, 사람들은 모두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친 듯, 말도 네 굵 부지런히 천 리를 달리려는 의사가 있으니, 대단하도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여!”라고 표현했다.⁶²⁾ 600년 동안 고려와 조선의 사신과 상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조양

58) 명말 뇌물이 극성했던 사정은 연행록에 자주 보인다. 한 예로 이만영, 『雪海遺稿』 권3, 『崇禎丙子朝天錄』과 김육의 『조경일록』에, 1636년 11월 5일 뇌물이 적다는 이유로 사행이 조양문 통과를 거부당한 사건이 자세하다.

59) 조양문을 통과하는 사신의 행차에 대해서는,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9, 『燕記, 入皇城』 (1765), 『열하일기』, 『관내정사』 8월 1일 (1780), 김선민, 『觀燕錄 上』 12월 23일 (1804) 등을 참조.

60) 『二憂堂集』 권1, 『出朝陽門』, “燕城春日客初歸, 東出朝陽快若飛. 遙想此行臨鴨水, 岸花汀草正芳菲.”

61) 『청장관전서』 권67, 『入燕記 하』 6월 16일. “及出朝陽門, 到大王庄. 路樹蔭綠. 肥萋黍如人. 嘆時物之已變. 喜馬首之指東. 久客將歸. 意致頗好.”

문은 이제 흔적조차 없다. 조양문이 있던 터임을 알려주는 조형물만 남아있을 뿐이다. 옛 조양문 근처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건물은 중국 외교부 청사이다. 조양문 밖 동남쪽에 자리 잡은 외교부 청사 일대는 예전 연암을 비롯한 연행사들이 금대석조 터를 찾아다니던 곳이다.

6. 牌樓 길 지나 玉河橋를 건너다

연행의 역사에서 조양문 진입의 감회를 가장 인상 깊게 드러낸 것은 1780년 8월 1일 박지원의 기록이다. 아래는 그중의 일부이다.

내 이제 조양문에 들어서자, 곧 저 요·순의 이른바 유정·유일의 마음씨가 이러하고, 하우씨의 홍수 다스림이 이러하고, 주공의 정전이 이러하고, 공자의 학문이 이러하고, 관중의 理財가 이러하였음이 눈에 선하게 띄었으며, 걸·주가 옥과 구슬로 궁궐을 세운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고, 몽염이 산을 허물어서 골을 메운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진시황이 곧은 길을 닦은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고, 상앙이 제도를 통일시킨 것도 이런 방법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 성인이 일찍이 그 門人의 물음에 대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말씀하셨으나, 이는 다만 말로만 하였을 뿐 몸소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세의 임금들이 반드시 그 학문이 성인보다 나은 것이 아니로되 곧 이를 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역시 어찌 중화 민족만이 그러하리오. 夷狄 출신으로서 중원의 임금이 된 자치고, 일찍이 道를 물려받아서 행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또 의식이 넉넉한 뒤에야 예절을 지킬 수 있다 하였은즉, 후세의 임금들 중에 그 나라를 튼튼히 하고 그 군사를 굳세게 하고자 한 자가, 차라리 각박하고 인정머리 없다는 이름을 무릅쓸지언정, 어찌 그 자신을 위해서 사리를 탐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 저들이 곧 이른바 精一의 방법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겠으

62) 박사호, 『국역 심전고』 제1권, 『燕薊紀程』. (한국고전번역원)

나, 그 功利의 효과를 누림에 있어서는, 비록 그 방법이 이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모아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정일을 본받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 이른바 재지와 역량이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다 함이 오늘날의 중국을 이룩한 것이며, 21대 3천여 년 동안의 모든 제도를 이에서 가히 상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나라 이름을 ‘淸’이라 하고, …그는 국통을 이은 지 벌써 네 대였고, 연호를 세워 ‘乾隆’이라 한다.⁶³⁾

『열하일기』를 관류하는 박지원의 문제의식은, 청나라에 대한 허위 관념과 그 실상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었다. 청의 실상을 밝히고 인정하면 허위 관념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조선의 금기를 저촉하는 일이었다. 박지원은 이 금기 속에서 성장한지라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금기의 위반은 의식의 일부를 부정하고 자이를 재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목적을 이루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현과 형식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열하일기』는 그러한 내외 이중 투쟁의 장소이자 문학적 실험의 장이다. 위 글도 현란한 수사와 장황한 논거에 비해 요지는 간단하다. “중국의 제도와 문물은 오랜 역사 전통의 산물이며, 그건 왕조를 세운 민족과는 무관하다. 지금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는 21대 3천 년 전통 속에 있으며, 거꾸로 이를 통해 찬란한 역사 전통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들은 천하의 지배자이며 그럴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部法의 차원에서 이 글은 6월 27일 책문의 기록과 조응 관계에 있으며, 주제를 두 글자로 간추리면 ‘功利’이다.

조양문을 통과한 사행은 성내의 거리를 거쳐 사관으로 이동했다. 이동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관의 위치부터 파악해야 한다. 명나라는 이웃 나라 사신의 접대 및 관리를 위해 담당 기구를 만들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63) 박지원, 『국역 열하일기』, 『관내정사』. (한국고전번역원)

를 會同館이라 하였다. 명초에는 남경에 회동관을 두었고, 북경 천도 이후에는 정통 6년(1441)에 남관과 북관을 설치했다. 북회동관은 澄清坊 대가 동쪽, 남회동관은 東江米巷 玉河橋 西街 북쪽에 있었다. 正陽門으로 들어가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南薰坊이 있었는데, 동강미향은 남훈방 안에 있었다. 남훈방 동북쪽으로 이웃하고 있는 마을이 澄清坊이었다.⁶⁴⁾

이중 남회동관이 조선 사신의 주 숙소였다. 玉河, 더 정확하게는 옥하에 놓인 세 다리 가운데 中玉河橋⁶⁵⁾ 서쪽 거리 북쪽에 있었다고 하여 보통 玉河館이라 불렀으며 南館이라고도 했다. 남관의 규모가 북관에 비해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南小館이라고도 했다. 현재 최고인민법원 자리가 옥하관 터로 추정된다. 회동관은 청초 會同四譯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옥하관은 조선 사신들의 전용 사관으로 이용되었기에, 조선관 또는 고려관으로도 불렸다.⁶⁶⁾ 이밖에 四夷館이나 烏蠻館으로도 불렀는데, 후자는 1405년 烏蠻驛이 회동관에 통합된 일에 연유한다. 北極寺(1720년 이의현)나 智化寺(1737년 이철보)를 일시 숙소로 삼은 적이 있지만, 특수한 경우였고 조선 연행사의 대부분은 옥하관에 묵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⁶⁷⁾

그런데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 네르친스크조약의 성립으로 변수가 생겼다. 러시아 사행이 북경에 오기 시작하면서 사관 이용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옹정 2년(1724) 乾魚衚衕 官房을 설치하여, 러시아 사절이 회동관에 먼저 들면 조선 사신을 이곳에 머물게 했다.⁶⁸⁾ 건어호동 사관이 새로 생긴 이유이다. 몇 년 뒤인 1732년에는 이의현이,⁶⁹⁾ 1734년에는 황재

64) 王靜, 『明朝會同館論考』, 『中國邊疆史地研究』 제12권 3기, 2002년 9월, 53~55면.

65) 옥하교는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長安街, 동강미향, 남성벽에 있었다. (陳宗蕃, 앞의 책, 174면.)

66) 祁慶富·김성남, 『清代北京의朝鮮使館』, 『청사연구』 2004년 8월 제3기, 107~114면.

67) 옥하관을 비롯한 북경 내 조선 사신들의 숙소 위치 및 변천에 대해서는 박현규, 『명청 대 북경 조선사관 고찰』, 『중국사연구』 82, 2013, 115~158면 참조.

68) 『欽定大清會典則例』 권95.

가⁷⁰⁾ 건어호동 사관에 묵었다. 앞 연구에서는 건어호동을 王府井 대가 동 북쪽의 甘雨胡同으로 보았다.⁷¹⁾ 乾魚(gānyú)와 甘雨(gānyǔ)의 발음이 거의 같은 것도 그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 이렇게 볼 경우, “길을 돌아서 남쪽으로 가고 다시 돌아서 서쪽으로 가다가 乾魚衙衙에 들어섰다.”는 황제의 기록은 지리 정황과 부합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⁷²⁾ 여기서는 명청 시기 조선 사신의 숙소를 옥하관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역관이나 의원 등 사신의 수행 관리들과 구마 등 하천배, 이밖에 수많은 상인들은 어디에 묵었을까? 다행히 김정선의 기록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듣건대 옛날에 관사가 협소하여 용납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따로 동쪽 담 밖의 집 하나를 사서 터 가지고 容接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북강[北炕]이었다. 상사와 부사의 주방과 任譯의 거주를 다 여기에 옮겼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터 수백 묘에는 수행한 장사치들이 각각 샅자리

69) 도곡집 권3, 「入燕都, 處乾魚衙衙」; 같은 곳 「紀行述懷 次三淵韻」其 46. “근래 새로 지어 우리 사신 머물게 하니, 전날 옥하관을 대신한 것 近復新創處我使. 替他前日館玉河.”; 같은 곳 「留館日無聊 漫次杜陵韻 追叙行役 爲一大篇 百韻」 주에도 “저 나라가 우리 사신을 위해 집을 지어 머물게 하고는 건어호동이라 했다. 彼國爲我使, 構屋而處之, 名曰乾魚衙衙.”라고 하였다.

70) 황제, 『국역 갑인연행록』 권2 8월 7일 기사. (한국고전번역원)

71) 祁慶富·김성남, 앞의 논문. 주요 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欽定日下舊聞考』 권45에 실려 있는 “원극관이 건어호동에 있었는데, 지금도 존속한다. 元極觀在乾魚衙衙, 今存.”라는 구절, 그리고 1732년 건어호동에 묵었던 이의현이 「壬子燕行雜識」에 남긴, 숙소에서 몇 십 걸음도 채 되지 않은 천주당 구경 기사이다. 천주당 동당은 지금도 王府井에 있다.

72) 연행록의 기사를 보면 건어호동의 위치가 혼란스러워진다. 박지원은 건어호동이 정양문 안쪽 동쪽 성벽 아래 있다고 했고, (『알성퇴술, 조선관』) 김정선은 옥하관 뒤의 거리라고 했다. (『연원직지』 권3, 『악라사관기』) 김정선은 건어호동의 사관이 西館이라고 했는데, (『연원직지』 권2, 『옥하관기』) 이는 서관이 瞻雲牌樓 거리에 있다고 한 박지원의 기술과 어긋난다. (『열하일기』, 『황도기략, 서관』)

집을 지어 지냈는데, 돈이 넉넉한 자는 온돌방을 좀 사치스럽게 꾸몄다. 일행의 刷馬와 驛馬는 모두 샅자리 집 밖의 노천에 있었다. 이른바 都卜人馬가 관 밖에 있으므로 임시로 5, 6칸짜리 집 하나를 사서 驅人들을 거처하게 하였으나 말은 다 노천에 서게 되었다.⁷³⁾

이에 따르면 사신들은 옥하관에, 주방과 역관 등은 새로 지은 북강에, 그리고 상인들은 관사 주위 공터를 이용하여 형편에 따라 거처를 마련했으며, 驅人들은 사관 근처에 따로 집을 마련하여 묵게 하였으니, 사행 전체가 옥하관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강은 김창업의 『연행일기』에 나오는 것을 보아 늦어도 1712년 이전에 마련된 것이다. 아래 김창업의 기록을 근거로 조양문에서부터 옥하관까지의 경로를 하나하나 짚어 살펴보자.

성안의 큰길은 넓이가 겨우 7, 80보로, 우리나라의 鐘街에 비해 3분의 1쯤 더 넓은 셈이다. 좌우의 市肆 역시 별로 화려하지 않았다. ① 성문에 들어가 3리쯤 가니, 네거리가 있고 동서남북에 모두 패루가 있었으니 곧 四牌樓이다. 패루 앞에는 ‘履仁街’라고 써어 있었다. ② 동패루로 들어갔다 가 남패루로 나와서 2, 3리쯤 가니 성문이 바라보였으니, 바로 ‘崇文門’으로 도성의 동남문이다. ③ 또 이 문에 이르기 수백 보 앞에서 꺾어서 서쪽 1리 거리에 이르면 석교가 있으니, 바로 玉河橋다. … ④ 옥하교를 지나 수백 보를 가면 관에 이른다. 관은 길가 북쪽에 있었다. 통관배가 대문 안에 있다 가 사신을 맞이하는데 擧手禮로 하였다. 이곳을 지나 중문으로 들어가니 문안에 동서로 廊屋이 있는데 다 허물어져 있었다. 원역배가 거처하는 곳이다.⁷⁴⁾

조양문에서 서쪽으로 1.5km를 가면 東四牌樓가 나왔다. 네거리 길마다 패루가 서있어 四牌樓인데, 서쪽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 ‘東’을 붙인 것이다.

73) 김경선, 『국역 연원직지』 권2, 『옥하관기』, (한국고전번역원)

74) 김창업, 『국역 연행일기』 권3, 12월 27일, (한국고전번역원)

명나라 때 건립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문헌에는 1712년의 위 기록이 최초이다. 동서 패루에는 각각 ‘履仁’과 ‘行義’를, 남북의 패루에는 모두 ‘大市街’를 새긴 石匾을 부착했다. 패루는 상점·다리·사당·공관·孝廉 등을 나타내는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패루의 기능은 거리의 표시였다. 1954년 서사패루, 동단패루, 서단패루 등과 함께 철거되었고,⁷⁵⁾ 그 자리에 전철 6호선 東四站이 들어서었다.

동패루로 들어갔다가 남패루로 나왔다 함은, 동사패루 네거리에서 남쪽으로 길을 틀었다는 뜻이다. 동사패루에서 남쪽으로 1.8km를 가면 長安街와 교차하는 지점에 東單牌樓가 서 있었다. 동단패루의 이름은 ‘就日’이었으며, 이는 장안가 서쪽 맞은편에 있는 ‘瞻雲’ 패루와 대칭을 이루었다. 박지원은 서단패루에 西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건어호동에 목을 경우에는 800m 지점에서 서쪽 골목으로 꺾어져 들어갔다. 동단패루에서 남쪽으로 지금의 崇文門大街를 통해 직진하면 북경성의 남동문인 崇文門이 나타났다. 김창업 일행은 숭문문까지 이르지 않고 수백 걸음 못 미친 곳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꺾었는데, 이곳이 東交民巷의 동쪽 끝 지점이다.

東交民巷의 원래 이름은 東江米巷이다. ‘巷’은 ‘街’와 ‘路’는 물론 衚衕보다 좁은 골목길을 의미했다. 원나라 시절 이 길은 성 밖에 있었으며 江米巷이라고 했다. 명나라 영락 연간 성을 개축하면서 거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大明門 밖에 基盤街를 닦으면서, 東江米巷과 西江米巷으로 나뉘었다. 원나라 때 남방에서 조운한 米穀이 이 일대에서 하역 집산되었는데, 당시 남방의 糯米(찹쌀)를 북방 사람들은 江米라고 했고, 여기서 江米巷이 생긴 것이다. 1860년 아편전쟁 이후 외국의 공사가 이 일대에 대거 자리를 잡으면서, 이 거리는 ‘Legation Street’(使館街)로 일컬어졌고, 지도에는 東

75) 패루의 기능 및, 동사패루와 아래 설명하는 동단패루의 연혁에 대해서는 陶然野佬, 「老北京的“單牌樓”和“四牌樓”」(http://blog.sina.com.cn/s/blog_538fed5d0102uxlm.html) (2014.7.12.) 참조.

交民巷으로 표기되었다. 交民은 外交之民이란 뜻이다. 서강미항은 자연스레 서교민항이 되었다.⁷⁶⁾ 이 길을 따라 1km를 가면 正義路와 교차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남북으로 나란히 놓인 세 개의 옥하교 중 中玉河橋 자리이다.

玉河는 1293년 郭守敬이 주도한 운하 건설의 일단으로 조성된 것이다. 玉泉山의 물을 積水潭으로 끌어들인 뒤, 황궁 안을 통과하게 했다. 이로 인해 御河라고도 불려졌다. 南河沿과 北河沿 등의 지명은 이 물줄기에서 기인한다. 옥하는 지금의 正義路 아래를 흘러 南玉河橋에 이르러 동쪽으로 꺾여 通惠河로 들어갔다. 그중 지금의 동장안가에서 남옥하교에 이르는 구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1860년 이전에는 조정의 주요 부서들이, 그 이후에는 외국의 공관들이 그 주위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원대에는 조운 물류가 활발했고, 명대에는 최소한 물이 맑고 양 독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어 그 풍광이 수려하기로 유명했는데, 1860년대 이후의 사진에는 물이 마르고 주변이 황폐해졌다.⁷⁷⁾

연행사들은 중옥하교를 건너 옥하관으로 들어갔다. 옥하교의 건립 연대는 명확하지 않은데, 옥하 조성 시기에서 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록에 옥하교는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481년 홍귀달(1438~1504)은 옥하교 서쪽에 화려한 사관이 열려 있다고 했다.⁷⁸⁾ 아래는 성현(1439~1504)이 포착한 옥하교의 풍경이다.

만 가지 수양머들 늘어진 주마대에

萬縷垂楊走馬臺

76) 동교민항의 내력에 대해서는 「老北京的“交民巷”牌樓」.

(http://blog.sina.com.cn/s/blog_538fed5d0102v0rr.html) (2014.8.26) 참조.

77) 李弘, 「【老地圖中的帝都 26】百年前這里叫玉河」.

(<http://opinion.caixin.com/2016-05-20/100945933.html>) (2016.5.20) 참조.

78) 『虛白續集』 권4, 「六月一日發通州, 路上被雨, 馳入玉河館, 是夜又雨」. “... 星馳電奔入金城。玉河橋西華館開. ...”

옥하의 흐르는 물 이기보다 푸르러라	玉河流水碧於苔
물결치는 비단잉어 수를 다 셀 수 없고	跳波錦鯉看無數
따스 별 산들바람 고운 뺨 반짝이네	日暖風輕露錦頰

무지개 다리 위에 흰 옥돌 난간이라	夾路虹橋白玉欄
기대 선 아가씨의 쪽머리 반듯하네	倚欄纖手整螺鬟
백 자 늘인 동병에선 물방울 날리는데	銅瓶百尺飛瀾灑 ⁷⁹⁾
궁궐에서 흘러나와 식수로도 가능하네	源出金溝淨可餐 ⁸⁰⁾

성현은 세 차례(1472, 1485, 1488) 사신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위 시가 어느 해 지어진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세기 후반 옥하교 일대의 풍광을 상상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 양 독에 버들이 늘어서있다고 한 것은 중국의 역대 기록과 부합한다. 머리를 단정하게 단장한 미인이 난간에 기대고 있는 모습은, 옥하교 일대의 청수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현의 눈에 비친 옥하의 물은 식수나 밥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맑고 깨끗한 것이었다.

7. 맺음말

연행사들은 옥하교를 건너 서쪽으로 수백 걸음 지나 옥하관에 당도했다. 한양을 떠난 지 한 달 반, 압록강을 건넌 뒤로 한달 동안 이어진 긴 여정이 일단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앞선 연구에서는 1441년 외국 사신을 위한 회동

79) 동병은 구리로 만든 두레박을 말한다. 蘇軾의 『昨見韓丞相 …』(『蘇東坡詩集』 권29) 시에 “동병을 푸른 우물에 드리우니, 백척 난간에 날린 물방울이 울어 대네. [銅瓶下碧井 百尺鳴飛瀾]”라고 하였다. 임정기 역, 『허백당집』(한국고전번역원, 2008.)의 주석 참조

80) 『허백당집』 권3, 『玉河橋雜詠』.

관을 건립했다고 했는데(각주 71), 천도 직후인 1421년부터 1440년 사이에도 외국 사신들이 묵는 관소가 있었고, 그 이름은 회동관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의 기사에는 1421년부터 1440년까지 북경 ‘회동관’이 11차례나 나온다. 자주는 아니지만 四夷館, 會同四譯館, 四譯館, 烏蠻館이란 명칭도 꾸준히 사용되었다. 가장 흔히 사용된 이름은 역시 玉河館이다. 이는 공식 칭호가 아니라 연행사들이 사용하던 관습상의 명칭으로, 중국의 문헌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옥하관 명칭은 1463년 강희맹이 사관 수문관인 校尉 卜以齡에게 준 시의 并序에 처음 보인다.⁸¹⁾ 이로부터 점차 자주 사용되었으며, 16세기 이후에는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짐을 풀고 준비해 온 表咨文書를 예부에 바치면서 사행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다. 사행의 옥하관 생활은 사안과 시대, 신분과 취향에 따라 달랐다. 사신들은 업무를 마친 뒤에도 한 달 정도를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사신들은 옥하관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공식 외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교 업무가 종료된 이후 옥하관과 그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옥하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옥하관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의문들이다. 통주~옥하관 구간 사행로를 지리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⁸²⁾

81) 강희맹, 『私淑齋集』 권4, 『贈卜校尉』(5수) “歲癸未秋, 希孟奉使朝燕, 寓玉河館. 一日, 散步門外, 門者卜校尉以齡, 敘寒暄 ….”

82) 홍대용의 『燕記, 路程』(『담헌서 외집』 권10)을 기본으로, 다른 연행록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연행 지명	거리	현재 행정 지명	다른 이름	기타
通州		北京市 通州區		성벽 남아있지 않음
八里橋	8리	조양구 八里橋站 북쪽	永通橋, 大通橋	1446년 건립
通惠河(大通河), 東便門~북운하 사이 운하				
楊家岡	2리	조양구 楊岡村		
管家莊	3리	조양구 管莊村	關家莊	
三間房	3리	조양구 三間房鄉		
定府莊	3리	조양구 定福莊		
大王莊	2리	조양구 大黃莊	大王店, 大王屯	
太平莊	3리	조양구 太平莊村		
紅門	3리	조양구 紅門十里堡		
金臺夕照碑, 朝陽區 東三環中路 23號 財富中心大廈 내 (金臺夕照站), 2002년 발견				
十里堡	2리	조양구 十里堡村	是里堡	
八里堡	2리	조양구 八里堡村	巴里堡	
新橋	6리	조양구 東大橋站	東大橋 (?)	팔리포(보)에서 6리
東嶽廟	1리	朝陽門外大街	彌勒院	1322년 완공
朝陽門	1리	동성구 朝陽門路口	齊化門, 杜門	1956년 철거
朝陽門外大街(國門東孔道, 朝陽門關外石道) - 通州와 朝陽門 사이, 1729년 개설				
東四牌樓	1.5k m	동성구 東四路口 * 東四站		1954년 철거
東單牌樓	1.8k m	동성구 東單路口 * 東單站		1954년 철거
玉河橋	1.7k m	최고인민법원 사거리	御河橋	
東江米巷		東交民巷		
玉河館		最高人民法院	南館, 會同四譯館	

참·고·문·헌

(1차 자료는 각주로 대신함)

- 高 巍, 『燕京八景析說』, 『北京古都歷史文化講座』, 2009.4.
- 祁慶富·김성남, 『清代北京의 朝鮮使館』, 『청사연구』, 2004.
- 寧 欣, 『廟會與市場』, 『文史智識』, 2006.
- 박현규, 『명청대 북경 조선사관 고찰』, 『중국사연구』 82, 2013.
- 李錦萍 역, 『1927年的北京東嶽廟』, 『북경민속논총』 제2집, 2014.(원문은 Janet R. TenBroeck, The Peking Temple of the Eastern Peak (Monumenta Series, 1964.)
- 李彩萍, 『北京東嶽廟與京城文化』, 『文化學刊』, 2011.
- 肅 放, 『東嶽廟與城市社會信仰空間的建構 - 以北京東嶽廟爲例』, 『華中師範大學學報(인문사회과학판)』, 2009.
- 艾 虹·呂曉青, 『黃金臺位置考辨』, 『保定學院學報』, 2017.
- 楊 昕, 『朝鮮使臣筆下的明代通州』,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
- 王銘珍, 『金台夕照御制碑出土』, 『北京檔案』, 2007.
- 王永斌, 『北京的關廟鄉鎮和老字號』, 東方出版社, 2003.
- 王 靜, 『明朝會同館論考』, 『中國邊疆史地研究』 제12권 3기, 2002.
- 李 軍·謝夢沖, 『朝陽門與朝陽門外大街追述』, 『北京檔案』, 2005.
- 張連星, 『北京朝陽門舊貌』, 『北京檔案』, 2012.
- 曹彥生, 『北京朝陽門外大街溯源』, 『북경민속논총』, 2013.
- 周士琦, 『黃金臺與金臺夕照』, 『文史雜誌』, 1993.
- 陳宗蕃 편, 『燕都叢考(1929)』, 북경고적출판사, 2001.
- 陳巴黎, 『北京 東嶽廟』, 中國書店, 2002.
- 陳喜波·鄧 輝, 『明清北京通州古城研究』, 『중국역사지리논총』 32권 1호, 2017.
- 蔡 蕃, 『北京通惠河考』, 『中原地理研究』, 1985.
- 李 弘, 『(老地圖中的帝都 26) 百年前這里叫玉河』 (2016.5.20.).
(<http://opinion.caixin.com/2016-05-20/100945933.html>).
- 陶然野佬, 『老北京的“交民巷”牌樓』 (2014.8.26.).

(http://blog.sina.com.cn/s/blog_538fed5d0102v0rr.html).

陶然野佬, 『老北京的“單牌樓”和“四牌樓」(2014.7.12.).

(http://blog.sina.com.cn/s/blog_538fed5d0102uxlm.html).

『東大橋：沒有橋 有座東嶽廟』, 『北京日報』(2017.1.12.).

(http://bjrb.bjd.com.cn/html/2017-01/12/content_96262.htm).



연행로의 地理와 心跡 2, 通州~玉河館

이 글은 연행로 중, 通州에서 북경의 숙소인 玉河館에 이르는 노정을 재구하고, 이 길에 남아있는 역사 자연과 사신들의 마음 자취를 살펴본 결과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압록강을 건넌 사신들은 대략 한 달 정도의 여정을 거쳐 북경에 도착했다. 도착 전 마지막 날에는 통주에서 묵을 때가 많았다. 통주에서 옥하관까지의 거리는 약 25km이다. 새벽에 통주를 떠난 사행은 오후에 숙소에 도착했다. 그 사이에 사신들은 八里橋를 건너며 내운하인 通惠河를 관찰했고, 東嶽廟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이국의 종교문화를 체험했다. 북경은 戰國時代 燕나라의 도읍지로, 천하의 인재를 모아 국력을 일으킨 昭王과 黃金臺 고사가 유명했다. 조선의 연행사들은 북경에서 황금대의 위치를 탐문하였으며 때론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여러 견해가 구구할 뿐 그 장소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동악묘에 미치기 직전 金臺夕照站 근처에는 1751년 乾隆帝가 세운 金臺夕照碑가 서있다. 연행로에서 겨우 500 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이 비석을 언급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겨두었다. 朝陽門을 통해 북경성에 진입했는데, 이 문은 북경성 진입과 고향 회귀의 감회가 표출되는 곳이었다. 북경성 안에 들어가서는 東四牌樓와 東單牌樓를 지나, 東江米巷을 따라 中玉河橋를 건넜다. 중옥하교를 건너자마자 길 북쪽에 옥하관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最高人民法院 자리가 옥하관 터로 추정된다. 옥하관에 여장을 풀면서 북경에서의 공식 외교 일정이 시작되었다.

주제어 八里橋, 通惠河, 金臺夕照碑, 東嶽廟, 朝陽門, 玉河橋, 玉河館

Abstract

Geography of the Route of Diplomatic Envoys to Beijing and Marks of
their Mind along the Route 2,
Tongzhou to Okhaguan

Lee, Seung-su*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ute from Tongzhou to Okhaguan, the accommodation in Beijing, on the route of diplomatic envoys to Beijing and investigated the historic story residing on that route and the marks of mind of the envoys. Although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times and circumstances, the envoys crossing Amnokgang River arrived at Beijing through the travel in about one month. On the last day before arrival at Beijing, the envoys mostly stayed at Tongzhou. It's about 25km from Tongzhou to Okhaguan. The diplomatic envoys left Tongzhou at dawn and arrived at the appointed accommodations in the afternoon. On that route, the envoys crossed Baliqiao and observed Tonghui river, the inner canal. The envoys experienced the religious culture of a foreign country as changing their clothes in Dongyue Miao. Beijing, the ancient capital of the Yan dynasty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China, is famous for the story of King Zhao and Huangjin Tai(Golden Terrace) which King Zhao strengthened the national power by attracting all the talented people of the world. The Korean diplomatic envoys explored or visited the location of Huangjintai in Beijing, but no one could identify the location except getting various kinds of tips on it. Right before Dongyue Miao stood Jintai Xizhao Bei, which was built by Emperor Qinglong near Jintai Xizhao Zhan in 1751. It's very wonderous that any document never mentioned the monument, located only about 500m away from the route of diplomatic envoys. The issue remains mysterious. The envoys entered into Beijingcheng through Chaoyangmen Gate. The gate was the object of their expressions on the feelings on the entrance to Beijingcheng and return home. After entering Beijingcheng, the envoys passed Dongsi Pailou and Dongdan Pailou and crossed the Zhongyu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
E-Mail : woohabin@hanmail.net

Heqiao along Dongjiangmi Xiang. Right after crossing Zhongyu Heqiao, Okhagwan stood on the north. It is estimated that Okhagwan was on the site of the present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As unpacking their travel baggages, the diplomatic envoys started the official diplomatic schedule in Beijing.

(Key words) Baliqiao, Tonghui River, Jintai Xizhao Bei, Dongyue Miao, Chaoyangmen Gate, Yu Heqiao, Okhagwan

논문투고일 : 2018. 10. 09. 심사완료일 : 2018. 12. 04. 게재확정일 : 2018. 12. 17.

